

哲學에 影響을 끼친 科學者에 對하여(4)

金容權

要컨대 『코페르니커스』의 天文說, 『가리레오』와 『뉴턴』의 物理學說은 特히 一般의 思想을 革新하며 哲學의 新見地를 開拓하여 준비 함이 적다하지 못할 것이다. 就中『코페르니커스』는 近世哲學의 祖라 稱할만한 『뿌루노』를 生하였으며 『가리레오』의 方法은 또 『데칼트』以降의 哲學者 中에도 存在하며 『뉴턴』의 體系에 至하여야는 『볼테르』 등과 如한 信奉者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라이프닛스』와 如히 或點에서 對抗의 地位에 잇는 者에게도 影響함이 적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十六世紀 以降의 科學者는 哲學史 上 有力한 □□을 이루게 되었섯으나 十八世紀의 後半에 至하여 哲學史 上의 一轉機를 生함에 際하여 正히 또 是 等 三科學者가 相合하여 重要한 役割을 演함에 至한 것이다.

批評哲學의 □唱者 『칸트』는 그 經歷으로 말하면 처음은 차라리 一個의 自然科學者로 指目되었든 것이다. 其 卒業 論文 『活力考』는 『데칼트』波와 『라이프닛스』波와의 物理說에 對한 一調停說로서 말하자면 理論 物理學의 一考察이며 其研究에는 地震과 地球 成立 等に 關한 地文學 또는 地球 物理學에 關한 것이 數種이 있다.

그리고 『칸트』로 하여금 그와 같은 方面으로 興味를 가지게 한 것은 實로 그 스승되는 『크넷센』의 힘이 컸었다 할 것이다. 대개 이 『말진·크넷센』은 그가 助教授로서 夭折하고 말았기 때문에 自己는 大系를 遺傳하지 못하였지만 其 弟子를 鼓吹한 點에 잇어서 不朽의 業을 成就하였다고 말하여도 조타. 그는 一面으로는 當時 公定한 哲學이라고 말할만한 『라이프닛스』·『볼프』의 形而上學을 奉承하는 同時에 他面으로는 『뉴턴』의 數學 物理學의 理解者이 었으며 紹介者로서 이 點이 特히 그 學生에게 影響을 주었든 것이다. 後年에 『칸트』가 空間 時間의 論에 잇어서 說破한 先天論은 『뉴턴』의 所謂 絶對 時空의 說을 客觀界에서 음긴 것에 不外하는 바라고 解釋된다. 卽 『칸트』의 理性 批判은 『뉴턴』의 數學 物理學의 地盤 위에 立한 것이며 同時에 이 地

盤의 堅牢한 바를 論說하는 任務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칸트』가 恒常 『뉴턴』을 念頭に 둔 것은 그 批判期前에 作한 『天體의 自然□와 理說』에서 『뉴턴』의 引力說을 徹底的으로 利用하고 地球의 成立을 解釋코자한 바에서도 明白한 것이며 또 其第三批判書되는 『判斷力批判』에서 無生物과 同樣으로 生物에까지 機械觀的 自然法則 下에 □得한 것인가? 不然한가를 說한 境遇가 『뉴턴』과 같은 사람이 나서 □草의 產出이라도 何等□□에 依하여 □□되지 아니하는 自然法則에 따라, 說明할 수 있음을 期待하고 云云』이라고 말한 바를 볼지라도 알 수가 있다.

그와 같이 『칸트』哲學은 『뉴턴』의 物理學 따라서 또 『가리레오』의 力學을 出發點으로 하여 基□로 하는 것이지만 是等 近世 科學의 □源이 된 『코페르니커스』의 精神은 當然히 또 『칸트』를 支配하는 것임은 容易히 推知할 수가 있거니와 더욱이 『코페르니커스』가 地動說으로써 從來의 天地觀을 一變케한 方法은 스스로 또 其批評 哲學的 態度를 律하는 바로서 여기에 그 『코페르니커스』의 轉回』라는 語가 생기는 것은 著明한 事實이다. 이것으로 보면 칸트의 批評哲學은 正히 近世科學의 指導者에게 □□하는 바가 만흔 것으로서 이것을 逆言하면 『코페르니커스』·『가리레오』·『뉴턴』의 三人은 實로 哲學史上 革新의 原動力이 된 것이라고 하여도 조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칸트』에 있어서는 其時代의 標準科學되는 數學 物理學과 密接 不離한 關係에 있지만 當時는 化學의 發展이 아직 그와 同樣의 資格을 가진 것으로 認定되지 안코 하물며 生物에 關하여야는 單히 事實의 記載나 或은 形而上學 解釋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되었으므로 科學의 生物學的 方面은 其眼 中에 全然 存在치 아니하던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 所謂 『프라톤』 型의 科學館이 完全히 遂行되든 일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十八世紀의 後半에 至하기까지 自然科學은 大體에 있어서 十五 六世紀의 方向을 支持하고 갖지만 이 形勢는 十八世紀로부터 十九世紀에 至하여 一變하게 되었다. 大概 當時 『린네우스』의 植物學에 있어서 또 『키유뵈에』의 動物學에 있어서 其他 諸家의 이 方面에 關한 新業에 依하여 從來 專혀 形而上學的 思辨 中에 숨은 生物學은 純然한 別種의 科學되는 資格을 具有함에 至하였다. 一方으로는 化學은 『라보아지에』에 依하여 物理學과 同樣의 數學的 性格을 □하게 되고 다시 또 從來 神秘的 形貌를 가지고 있던 電氣 磁氣의 現象도 漸次 實驗 觀察의 域內로 導入되었다. 『안페-루』·『볼타』·『갈바니아』等은 實로 今日 우리가 □用하는 術語를 創製함이 적지 안혔고 더욱이 電磁의 學術에 關한 新機運을 일으키든 사람들이다.